

“데이터로 풀어보는 외국인 유학생”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 유학생 체류·정주 현황 분석

- 2019년 대비 2025년 외국인 유학생 신규 입학생 수 75% 증가
- 외국인 박사의 81.3%가 국내에 정착하지 않고 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 - 재학 - 졸업 - 취업 - 정주’ 전 과정을 분석한 「외국인 유학생 체류·정주 현황」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분석은 국내 대학에 입학·졸업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의 어느 지역, 어떤 전공에서 늘어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유학생이 학업을 마친 후 국내에서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는지”, “특히, 석사·박사 졸업생 중 몇 명이 국내에 정주하는지” 등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 동안 국내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53만 명의 출신 국가, 국내 거주지, 전공, 학업 성적 등을 분석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15만 명이 졸업 후 국내에서 어떻게 정착하는지를 분석하였다(상세 붙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통계 분석을 통해 유학생정책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이민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26년 4월부터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발족하여 유학생정책과 비자(D-2)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으며, 시간제 취업 제도 개선부터 데이터 기반 유학생 관리까지 유학생의 입국·재학·졸업·정착 경로를 관리하기 위한 혁신 과제들을 다듬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32만 명에 이르는 만큼, 이들의 학업·취업·정주 현황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매년 관련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며, “다양한 데이터를 적극 발굴·분석하여 통계에 기반한 유학생정책과 비자제도 등 이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외국인 유학생 체류·정주 현황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책임자	팀 장	김민경 (02-2110-4379)
		담당자	사무관	이운호 (02-2110-4472)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향숙 (02-2110-4055)
		담당자	사무관	용창식 (02-2110-4062)



일 러 두 기

- 이 자료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유학생 정보와 출입국·체류 정보를 활용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정주 경로를 분석한 결과임
- 분석 대상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대학에 입학한 유학생 530,557명(교환학생 포함) 및 같은 기간 동안 졸업한 유학생 152,107명(입학 시기 무관, 교환학생 제외)임
- 유학 체류자격(D-2)을 기준으로 '유학생'을 집계함에 따라 교육부 「교육기본통계」와 '유학생' 수가 상이할 수 있음
 - ※ 「교육기본통계」의 경우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외국 국적'인 경우 유학생으로 집계
-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취업자'를 집계함에 따라 교육부 「고등교육 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와 '취업자' 집계 방식이 상이할 수 있음
 - ※ (법무부) 취업비자(E-1~7) + 거주(F-2) + 영주(F-5) 체류자격 소지자
 - ※ (교육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농림어업종사자 + 개인창작활동종사자 + 1인창(사)업자 + 프리랜서
- '취업' 및 '정착'의 경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졸업한 유학생의 졸업 이후부터 2026년 3월까지의 이력을 기준으로 집계하였음
- 일부 자료는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 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용어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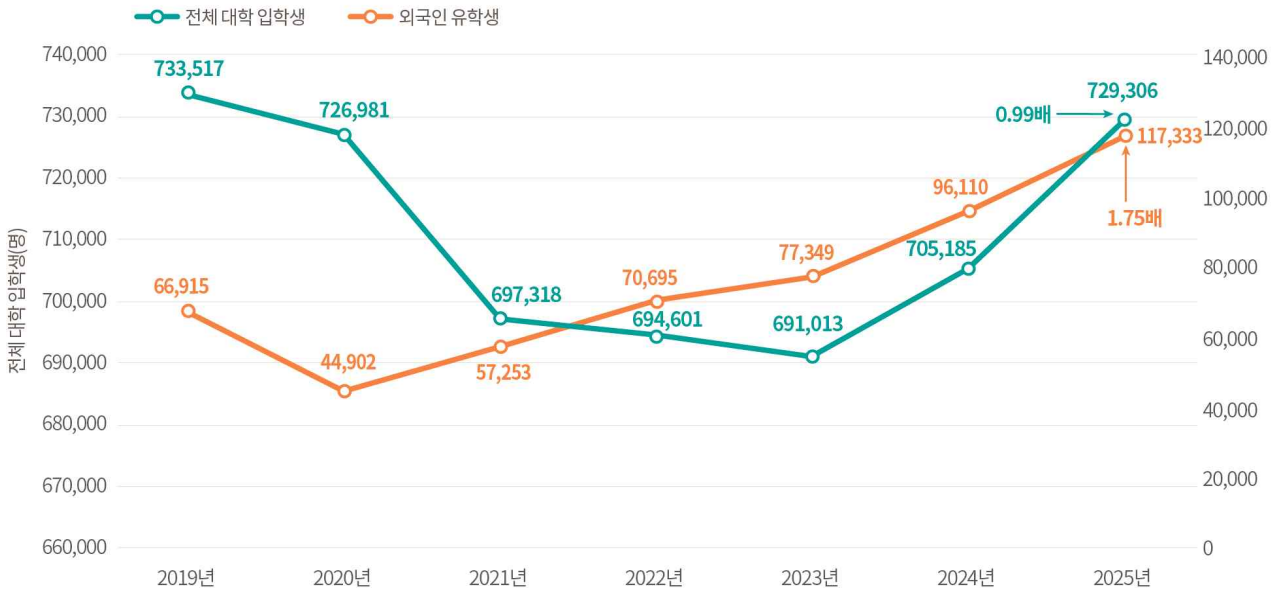
- ▶ 유학생: 유학(D-2) 체류자격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
- ▶ 시간제 취업: 유학생이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고 학업 목적 외 취업 활동(아르바이트)를 하는 행위
- ▶ 취업자: 졸업 후 취업비자(E-1~7) 또는 거주(F-2), 영주(F-5) 자격으로 변경한 외국인
- ▶ 완전 출국: 외국인등록증 반납과 함께 본국으로 귀국하여 「출입국관리법」 제37조의2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
- ▶ 산출 공식
 - 취업률(%) = [취업자 / (졸업자 - 졸업 직후 완전출국자)] × 100
 - 시간제 취업 비율(%): [시간제 취업 허가자 / 전체 유학생] × 100
 - 국내 정착률(%) = [취업비자(E-1~7) 소지자 중 거주(F-2), 영주(F-5) 자격변경자 / 취업비자 소지자(E-1~7)] × 100

1. 유학생 입학 현황

□ 2019년 대비 2025년 외국인 유학생 신규 입학은 75% 증가

- 2025년 외국인 유학생 신규 입학은 11만 7,333명으로 2019년 대비 75% 증가한 반면, 국민을 포함한 전체 입학생은 같은 기간 1% 감소

< 2019~2025 외국인 유학생 신규 입학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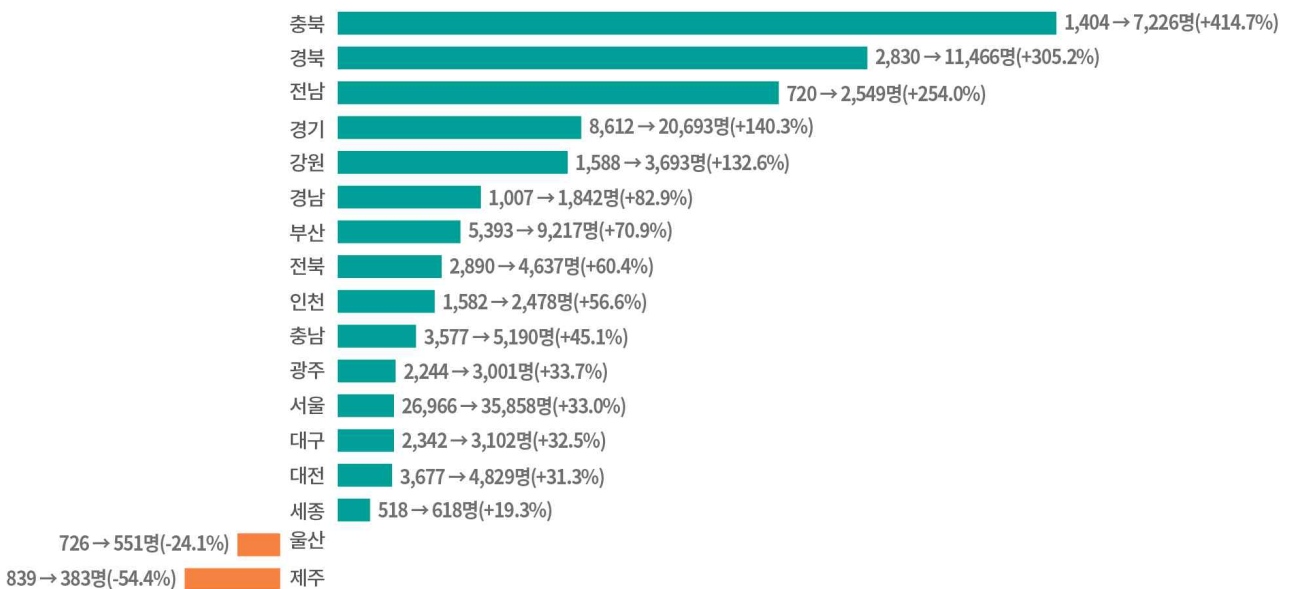
※ 전체 입학생: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 지역별로는 충북, 경북, 전남, 경기에서 외국인 유학생 신규 입학 증가세가 특히 컸고, 울산, 제주에서는 입학생이 감소하였음

- 충북은 의약·공학, 경북은 의약 분야 중심으로 유학생 유입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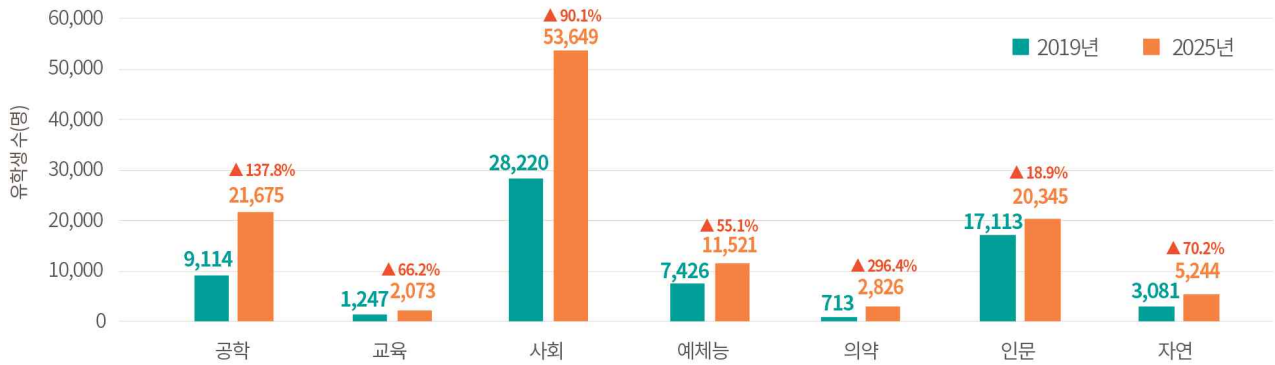
※ (의약) 의학, 보건, 물리치료, 임상병리, 돌봄 분야 등

< 2019~2025 지역별 입학생 증감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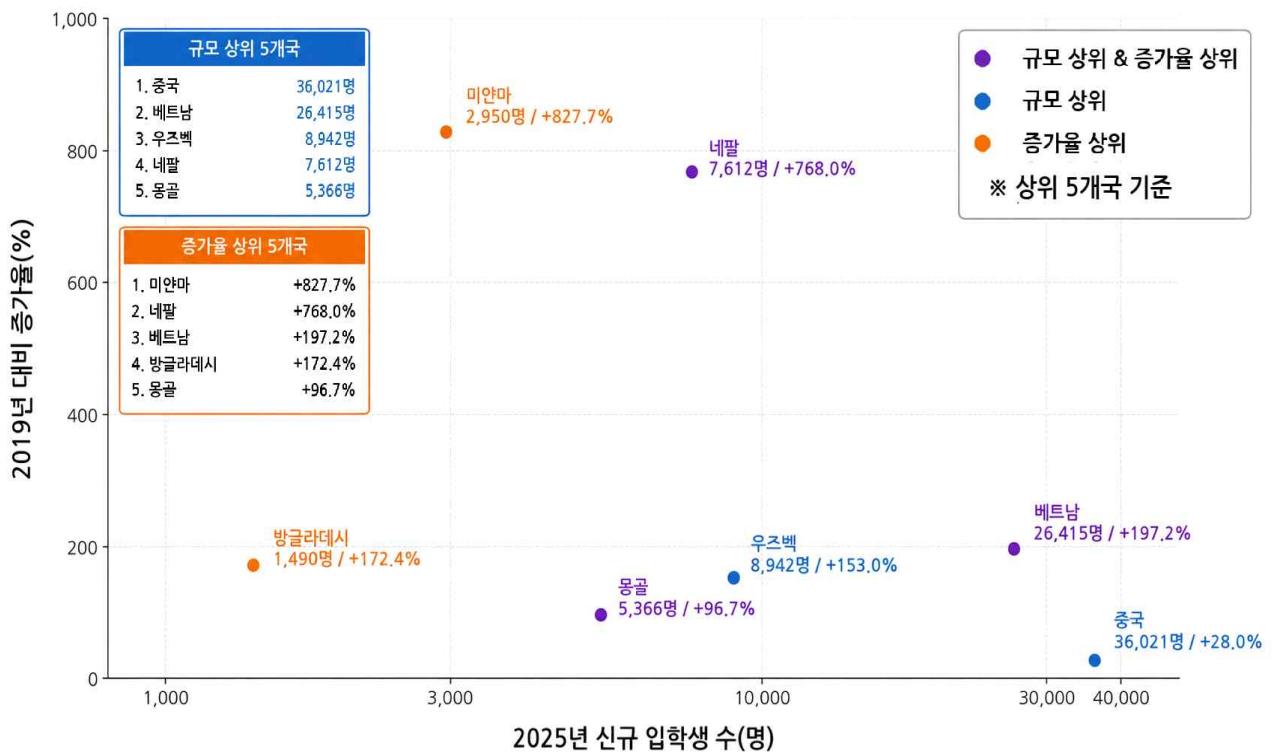
- 전공별로는 임상병리학·간호·돌봄(▲296%), 반도체 관련 학과(▲138%)에서 입학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돌봄 수요 및 첨단 산업과 연계된 유학생 유입이 확대되고 있음

< 2019~2025 전공별 입학생 수 비교 (단위: 명) >



- 국적별로 증가율 면에서는 미얀마(▲828%), 네팔(▲768%)의 증가율이 컸고, 규모 면에서는 중국(3.6만명), 베트남(2.6만명) 등이 상위권을 유지

< 국적별 유학생 입학 규모 비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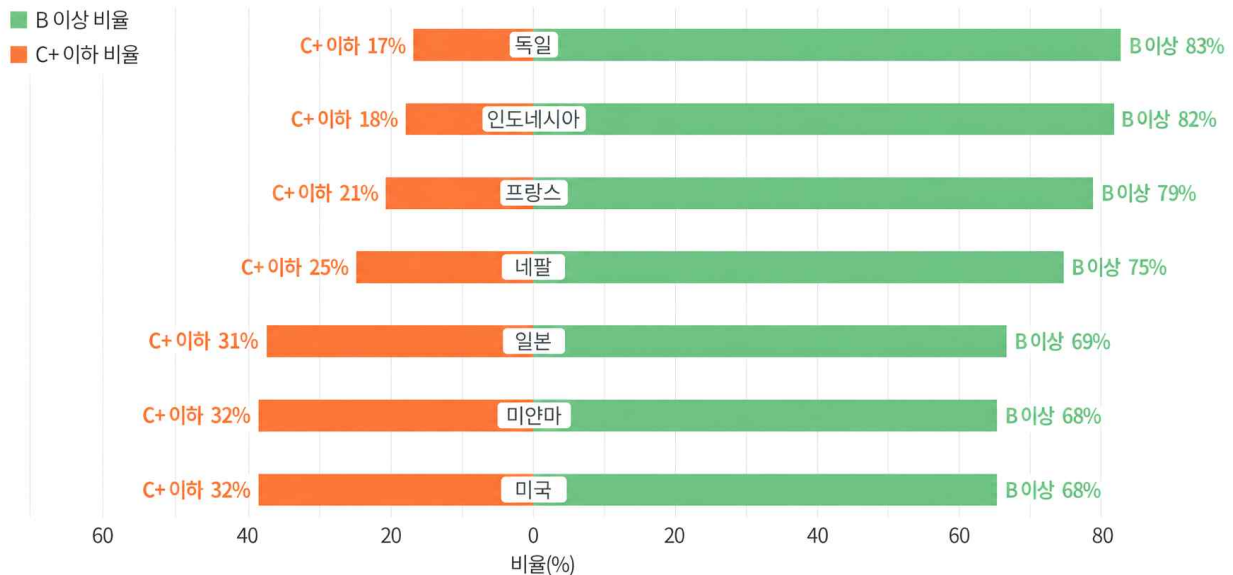


2. 유학생 재학 현황

□ 독일·인도네시아 등은 학업 성적이 비교적 우수

- 독일·인도네시아·프랑스·네팔 출신 유학생의 평균 성적이 B 이상인 유학생의 비율이 7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일본·미얀마·미국 출신 유학생은 68% 이상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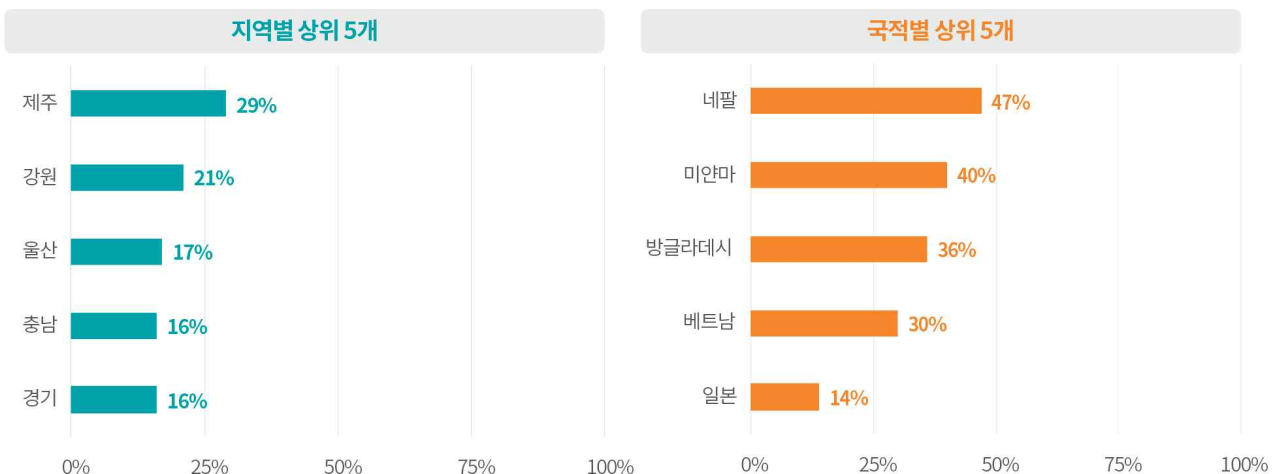
<유학생 학업 성적 상위 7개 출신국>



□ 시간제 취업 허가 비율은 특정 국가 출신 유학생에서 높게 나타남

- 지역별 시간제 취업 허가 비율은 제주(29%) > 강원(2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국적별 시간제 취업 허가 비율은 네팔(47%) > 미얀마(40%) 순으로 높게 나타남

<유학생 시간제 취업 상위 5개 지역·국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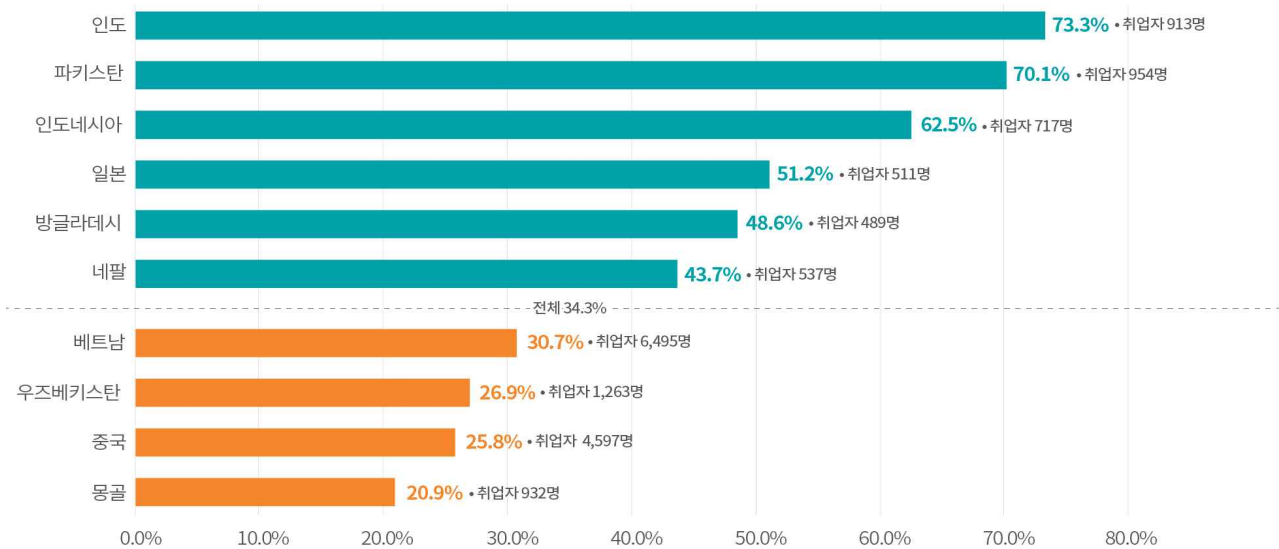


3. 유학생 졸업 · 취업 현황

□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률 34%… 이공계 중심 취업

- 졸업 후 출국한 유학생을 제외한 졸업자의 취업률은 34.3%로 나타났으며, 국적별 취업률은 인도 > 파키스탄 > 인도네시아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2024년 기준 내국인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69.5%(「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2025」)
- 국적별 취업자 수는 베트남(6,495명) > 중국(4,597명) > 우즈베키스탄(1,263명) 순으로 많았음

< 국적별 유학생 졸업자의 취업률 >



- 전공별 취업률은 공학(59.1%)·의약(54.6%)·자연(44.1%) 계열에서 높은 반면, 인문(24.8%)·사회(26.7%)·교육(29.4%)·예체능(23%) 계열에서 낮게 나타남
- 전공별 취업자 수는 사회(8,145명) > 공학(7,739명) > 인문(2,692명) 순으로 많았음

< 전공별 유학생 졸업자의 취업률 >

전공	졸업자 수	출국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전체	152,107	86,231	22,576	(34.3%)
공학	24,058	10,970	7,739	(59.1%)
의약	2,801	1,522	698	(54.6%)
자연	8,304	4,091	1,859	(44.1%)
교육	4,263	3,016	366	(29.4%)
사회	71,487	40,956	8,145	(26.7%)
인문	20,785	9,946	2,692	(24.8%)
예체능	20,409	15,730	1,077	(23.0%)

- 세부 전공별로 살펴본 결과, 분자·나노공학(84%), 조선·해양공학(80%) 등 일부 공학·제약 계열에서 취업률이 70%를 상회하여 타 세부 전공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취업률 상위 7개 세부 전공별 취업자 수는 화학공학(573명) > 신소재·재료공학(352명) > 에너지·원자력 공학(316명) 순으로 많았음

< 유학생 졸업자 취업률 상위 7개 세부전공 (단위: 명) >

전공	졸업자수	출국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분자과학,나노공학	397	137	219	 (84%)
조선, 해양공학	413	133	223	 (80%)
신소재, 재료공학	721	278	352	 (79%)
화학공학	1,373	626	573	 (77%)
제약	560	275	214	 (75%)
에너지,원자력 공학	888	462	316	 (74%)
바이오공학	336	158	127	 (71%)

- 졸업자 수가 많은 경영·마케팅(27%), 미디어(35%), 호텔 관광(20%), 국제학(34%), 외국어·외국문학(26%) 전공은 이공계열에 비해 취업률이 다소 저조하게 나타남

< 유학생 졸업자 수 상위 5개 세부전공(이공계 제외) (단위: 명) >

전공	졸업자수	출국자 수	취업자수	취업률
경영·마케팅	43,307	26,094	4,578	 (27%)
미디어	7,888	5,031	996	 (35%)
호텔 관광	6,919	2,056	951	 (20%)
국제학	5,939	3,116	954	 (34%)
외국어, 외국문학	5,013	2,704	610	 (26%)

- 지역별 취업률은 울산광역시(57.4%), 경상남도(51.9%), 전북특별자치도(40.5%) 소재 대학 졸업자에서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일부 지역에서는 취업률이 30%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별 차이 존재
- 지역별 취업자 수는 서울(8,563명) > 경기(3,109명) > 부산(1,670명) > 대전(1,303명) > 전북(1,186명) 순으로 많았음

< 지역별 유학생 졸업자의 취업률 (단위: 명) >

상위 5개 지역				
지역	졸업자	출국자	취업자	취업률
울산	1,481	603	504	(57.4%)
경남	2,481	1,110	711	(51.9%)
전북	6,836	3,908	1,186	(40.5%)
대전	7,932	4,637	1,303	(39.5%)
인천	3,290	1,986	510	(39.1%)
				34.3%
하위 5개 지역				
지역	졸업자	출국자	취업자	취업률
세종	1,675	1,306	83	(22.5%)
전남	2,674	1,742	224	(24.0%)
경북	6,912	3,285	1,007	(27.8%)
충남	7,837	4,185	1,041	(28.5%)
광주	6,123	3,942	646	(29.6%)
				34.3%

4. 유학생 정주 현황

□ 졸업자 70%는 최종 출국... 거주·영주 단계로 갈수록 진입률 감소

- 졸업 후 출국 비율은 박사 81.3% > 학사 71.8% > 석사 71.3% > 전문학사 26.4% 순으로 나타났으며, 취업 및 거주·영주 비자로의 전환은 전문학사가 55.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6년 3월 기준 졸업자의 체류자격 및 완전 출국 현황 (단위: 명)>

최종 학력	졸업자	완전출국	구직(D-10)	취업(E-1~7)	거주(F-2)	영주(F-5)	기타
전문학사	8,894 (100.0%)	2,350 (26.4%)	1,265 (14.2%)	3,822 (43.0%)	1,059 (11.9%)	16 (0.2%)	382 (4.3%)
학사	61,880 (100.0%)	44,403 (71.8%)	2,760 (4.5%)	9,740 (15.7%)	2,193 (3.5%)	238 (0.4%)	2,546 (4.1%)
석사	58,817 (100.0%)	41,915 (71.3%)	2,408 (4.1%)	7,234 (12.3%)	4,607 (7.8%)	593 (1.0%)	2,060 (3.5%)
박사	22,518 (100.0%)	18,304 (81.3%)	1,585 (7.0%)	780 (3.5%)	775 (3.4%)	610 (2.7%)	464 (2.1%)
전체	152,109 (100.0%)	106,972 (70.3%)	8,018 (5.3%)	21,576 (14.2%)	8,634 (5.7%)	1,457 (1.0%)	5,452 (3.6%)

※ 2026년 3월 기준 국내 체류 현황을 기준으로 집계

- 석사 졸업자의 완전출국자 수는 41,915명이고, 완전출국 비율은 예체능(79%), 자연(79%) 전공에서 가장 높았음
- 박사 졸업자의 완전출국자 수는 18,304명이고, 완전출국 비율은 예체능(97%), 교육(92%) 전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26년 3월 기준 석·박사 졸업자의 '완전 출국'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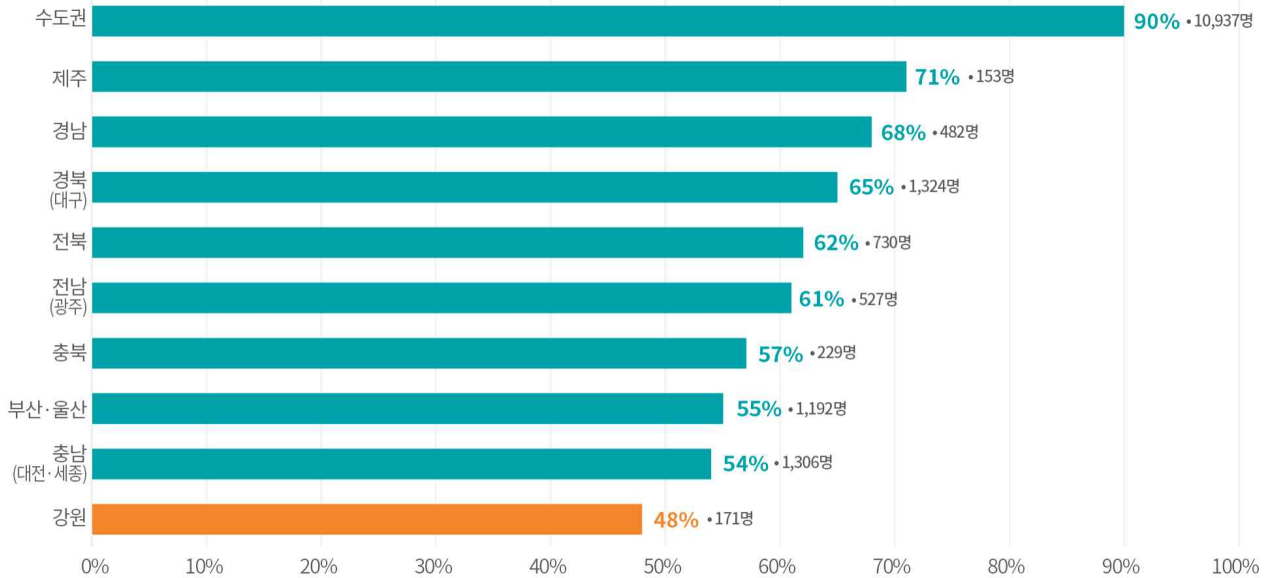
전공	석사			박사		
	졸업자	출국자	완전출국 비율	졸업자	출국자	완전출국 비율
공학	7,126	5,226	73%	5,307	3,513	66%
교육	2,091	1,481	71%	1,743	1,609	92%
사회	32,373	23,039	71%	4,127	3,411	83%
예체능	5,791	4,589	79%	6,348	6,159	97%
의약	1,095	849	78%	1,056	752	71%
인문	7,836	4,740	60%	1,733	1,321	76%
자연	2,505	1,991	79%	2,204	1,539	70%
합계	58,817	41,915	71%	22,518	18,304	81%

※ 2026년 3월 기준 국내 체류 현황을 기준으로 집계

□ 취업자 절반 이상이 대학 소재 지역에 정주... 지역 정착 가능성 확인

- 취업자 22,576명 중 54%는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으로, 이 중 90%가 수도권에서 취업하였으며, 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취업자의 50% 이상이 대학 소재 지역에서 취업하였음

<졸업 후 대학 소재 지역 취업 비율>



- 유학생이 졸업 후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전환한 경우 이 중 32%(3,701명)가 국내 정착(거주(F-2) 또는 영주(F-5)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졸업 후 연구(E-3) 자격으로 전환한 유학생의 50%(2,145명)는 한국을 떠나 출국 비율이 높게 나타남

<취업 체류자격별 국내 정착률 및 완전출국 비율 (단위: 명)>

취업 체류자격	취업자 수	국내 정착률 (F-2, F-5 자격변경)	완전출국	완전출국 비율
교수(E1)	596	159 (27%)	171	29%
회화(E2)	1,178	98 (8%)	419	36%
연구(E3)	4,297	852 (20%)	2,145	50%
특정활동(E7)	11,458	3,701 (32%)	1,290	11%

※ 2026년 3월 기준 국내 체류 현황을 기준으로 집계